

# 風水地理說과 建築計劃

朴 時 翼

## 1 序 論

### 1-1 研究의 方向

現在까지 남아있는 우리 祖上들의 建築을 바라 보면서 우리는 그 形態의 自然스러움과 기술의 卓越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根本精神을 찾아 배우려고 하거나 또는 이로부터 發展하려고 하는 努力보다는 外國에서 이미 그들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땅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科學으로 알고 이를 崇上하는 傾向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地理의 性格이 다르듯이 文化의 性格도 다르게 마련이다.

建築을 포함한 한 社會의 文化는 鹿 社會의 思想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과거歷史에 의하면 風水地理說이 우리들의 建築에 커다란 比重을 찾아한 思想이었음을 알 수 있다.

(1章 2, 風水地理說의 歷史的 根拠參照)

즉 風水地理說에 의하여 궁궐이나 寺刹을 짓고 都邑地를 選定하는 記錄이 매우 많다.

우리는 오늘 科學의 時代에 살고 있다. 따라서 과거 文明이 오늘날처럼 發達되기 以前에 있었던 風水地理說은 과거에만 있을 수 있는 일종의 迷信으로 看做하여 學問的인 價值가 전혀 없는 것으로 不信하였다. 오늘날에도 “風水地理”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른자가 祖上의 墓所를 明堂에 묻어서 그 덕으로 편안하게 살고져하는 속되고 터무니 없는 미신」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歷史에 나타난 根拠 즉 風水地理說에 의하여 建築을 實行한 數千年의 記錄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風水地理說이란 假說 전혀 근거 없는 迷信뿐인가? 하고 反問한다면 아무도 이에 선뜻 大答하지 못한다.

이것은 風水地理란 무엇인가? 그 理論을 確實히 아는 者만이 그 大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風水地理의 理論이

없는 者는 누구도 風水地理說을 肯定할 수도 否定할 수도 없다. 따라서 20世紀 科學의 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들의 祖上들의 思想에 影響을 준 風水地理란 假說 무엇인가? 또 風水地理란 現代科學 時代에 전혀 쓸모 없는 古事인가? 하는 問題를 科學的으로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선 우리 祖上들의 建築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숨은 뜻을 찾아내어 오늘날의 순수한 우리만의 文化에 發展케 함에 기여하는 것이 建築學徒의 任務中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風水地理의 理論을 把握하여 建築 과의 關係를 調查하는 것이 本研究의 目的이다.

風水地理說을 調查하는 과정에서 周易에서 나온 陰陽五行說이 이 風水地理의 理論에 깊이 關여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本研究의 順序를 第1章의 序論에 이어 第II章에서 風水地理의 理論을 調查하였고 第III章에서 陰陽五行說을 調查하였고 IV章에서 風水地理 및 陰陽五行이 過去 建築에 어떻게 關聯을 맺었는지 調查하였고 V章에서는 現代에 風水地理 및 陰陽五行이 어떻게 應用될 수 있을까인가를 調查하였다.

### 1-2 歷史에 나타난 風水地理說

風水地理說이 過去 歷史에 어떠한 影響을 주었던가를 나타낸 記錄을 震檀學會 韓國史中의 中世篇, 高麗朝時代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1. 高麗太祖의 地理圖讖에 關한 信仰 : 高麗史 p. 78.
2. 太祖의 訓要十條 : p. 79-87.
3. 定宗의 西京遷都計劃 : p. 95.
4. 圖讖說의 內容 p. 96.
5. 國家公務員으로서의 風水師 p. 278.
6. 地理師의 國家階級 p. 156.
7. 李資謙의 亂과 十八子讖說 p. 426.

8. 妙淸의 遷都運動 p. 430.
9. 仁宗의 維新政教 p. 532.
10. 大花勢의 意義 p. 433.
11. 歷代諸王의 年號 p. 433.
12. 大花宮의 竣工 p. 434.
13. 林原宮城과 八聖堂 p. 434.
14. 毅宗과 凶讖說 p. 452.
15. 鄭仲夫와 重房裨補 p. 457~461.
16. 十八子讖說 p. 467.
18. 道說秘記 p. 508.
19. 補宗時代의 山川裨補
20. 諸離宮의 經營 p. 582.
21. 왜구의 侵入과 白岳新宮 p. 655.
22. 辛鈍의 凶讖說惡用 p. 665~670.

以上에 있는 記錄에 의하면 地理師는 당시 國家의 正式 公務員이었으며 高麗 太祖로부터 李祖에 이르기까지 歷代의 모든 王이 地理凶讖說을 굳게 믿어 이로 인하여 궁궐과 離宮의 經營을 하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 2 風水地理의 理論

### 2-1 風水地理의 意義

#### 1. 風水地理라는 用語의 調査

風水地理라는 말이 사용되어 지게 된 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 였다. 歷史上으로 보면 高麗의 (正祖)王 때에 이미 風水地理가 科學의 試驗課目中的 하나로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實際에 있어서는 그 以前부터 즉 新羅 혹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도 마치 원시인들의 信仰과 같이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原始의 生活을 함에 있어서 살터를 마련하여 한곳에 定着하기 좋은 곳은 우선 生活을 自然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곳 自然의 惠澤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여러 自然의 條件中에서도 바람과 물은 사람들에게 가장 두렵고도 소중한 存在였다.

生活의 터전은 우선 寒冷한 北風이나 河川의 汎濫등을 피하고 食水, 草木과 家畜등 豊富한 食量과 温和한 氣候를 구비한 곳이어야 했다.

즉, 生活의 터전으로서의 우선 風과 水의 禍를 입지 않을 곳이어야 할뿐아니라 오히려 生活에 보탬이 되고 惠澤을 주는 風과 水를 갖춘 곳이어야 했다. 따라서 土地를 選定하는 必要要件으로 風과 水를 觀察하는 慣習이 생기게 되었고 地形을 살피는 것은 風水를 본다고 하게 되었고 居宅이나 墓地에 있어서도 地勢를 觀察하는 行為는 모두 이것을 風水라 하게 되었다.

한편 中國에서는 風水의 影響이 郭撲의 葬經에서 부터 由來된 것이라고 明나라 嘉靖 43年 甲子(1564)에 쓰여진 「人子須知」에 적혀 있다고 한다.<sup>1)</sup>

郭撲의 葬經의 主眼은 「葬者乘生氣世」(죽은자는 生氣

를 타야한다)라고 하였고 또 이 生氣는 風을 만나면 흩어지고 地中에 흐르면서 水를 만나면 정지하게 되고 生氣를 乘하기 위해서는, 生氣가 貯積하여 있는 곳을 必要로 하고 이러한 곳으로서는 「得水爲上 藏風次之」라고 하여 得水와 藏風을 風水의 根本原則으로 하였다.

地理는 山과 水의 地勢, 地形 및 그의 動靜의 뜻으로 近代의 地理學에 比하면 땅을 生的 動的으로 생각하고 땅과 人生과의 關係를 보다 더 直接的으로 중하게 여긴다. 즉 現代의 地理學은 地를 砒物, 無生物로 取扱하고 그의 人生과의 交涉은 사람에게 居住의 地域을 提供하는 곳 또는 사람의 生活을 길러 주는 財貨의 生産場으로서 단지 사람의 利用에 任하는 受動的의 位置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風水地理에서는 땅을 能動的으로 보고 땅에는 萬物을 化生하는 生活力이 있어서 그의 活力의 厚薄如何에 의하여 人生의 吉凶禍福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地中에는 生氣가 行하고 있어서 이 生氣는 바로 人體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

즉 現代의 地理學은 땅을 오직 物質的이고 사람의 利用에 따라서 役割하는 것으로 取扱하고 있으나 風水地理에서는 땅을 活物的으로 생각하여 이것이 直接 人生의 吉凶禍福을 左右하는 能動者로 取扱하여 한편 두려워 하고 있다.

또한 땅의 人生에 부여하는 吉凶禍福을 觀察하는 法을 行하는 것을 地術이라 하고 또는 堪輿라고도 한다.

#### 2. 地母信仰

사람은 天地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의 惠澤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人生의 興亡盛衰가 天地에 의하여 規定되어 진다.

또 天과 地의 兩者를 나누워 생각해 보면 사람의 生活은 地上에서 營爲되고 그 生活資料는 大部分 땅에서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땅의 能力도 하늘의 힘을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을 父와 같고 地를 母와 같이 믿게 되고 人生에 작용하는 것은 母와 같은 地이며 風水는 人生에 直接 影響을 주는 母와 같은 地에 의하여 그 生活의 발전과 幸福을 구하려고 함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求하고자 하는 것도 理代科學이나 地理에서 取扱하는 바와 같이 人文 내지 經濟的 方面에 있지 않고 吉凶禍福을 追求하여 人生의 內面的인 幸運을 享受함에 있다. 이와 같이 땅을 幸福과 發展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 깊어져서 窮極的으로는 一種의 信仰과 같이 믿어져 있기도 한다.

#### 3. 風水의 目的

風水의 目的은 人生을 天地의 힘에 맡기어 發達과 幸福을 求하고자 함에 있는데 具體的으로 말하면

첫째 住宅을 吉地에 세워서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幸福을 받게 하는 것과

둘째 先祖의 墓를 吉地에 묻어 그의 子孫에 繁榮을 피

註1) 震檀學會, 韓國史 近代前期篇 p. 276

註2) 朝鮮의 風水 p. 3

하는것 위의 두가지가 있다.

즉 風水住居法으로 말하면 같은 모양의 南面한 언덕에 세운 甲乙兩家(또는 부락)가 같은 運命을 갖게되지 않고 甲은 繁盛하고 乙은 衰亡하였다면 그 이유는 甲乙兩家の 집터 및 周圀의 地氣의 吉凶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墓地도 역시 地相이 善惡에 의하여 葬者가 吉한 氣를 받고 그 後孫도 그 先祖의 影響을 받아 幸 或은 不幸을 받게 되는 것이다.

#### 4. 父母와 子孫과의 關係<sup>3)</sup>

風水地理에 있어서 父母와 子孫과의 關係를 마치 나무에 있어서 根幹과 枝葉과 같이 한줄기 한 연속체로 본다. 따라서 枝葉의 繁茂를 꾀하기 위해서는 그 枝葉 自体에 손을 쓰는것 보다는 오히려 根幹을 복돋아 주는 방법이 目的을 이루는 確實하고도 迅速한 效果가 있는 것과 같이 住宅으로 부터 子孫이 幸福을 寄与 받는 效果보다도 根幹에 相當하는 父母의 墓地로부터의 影響이 보다 直接的이고 迅速하다고 믿어져서 現在의 住宅보다는 祖上의 墓地를 重要하게 모시게 된다.

또한 子는 父의 精으로 태어 난 것이고 父의 骨도 그 父의 精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고 하여 父의 精인 그의 骨과 子는 한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地中の 父의 骨이 좋은 氣를 맞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그의 孫에게 좋은 氣를 傳達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나무의 뿌리가 받는 影響이 枝葉에 그같은 結果를 맺게함과 同一한 것이다. 다만 나무에 있어서 根幹은 땅에 묻혀서 있어서 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음과 같이 父母와 子孫과 靈的이며 心的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은 나무에 있어서와 같다.

#### 2-2 風水의 用語<sup>4)</sup>

風水說에 있어서 地脉을 龍이라 부르고 地脉이 生氣를 맺는 곳을 穴이라 하고 그 穴의 周圀를 둘러싼 언덕을 砂라고 함과 같이 그 使用하는 名稱이 다르다. 이에 風水說에서 使用되는 用語中에 기본되는 것을 해설하면 아래와 같다.

陰宅：墓地를 말한다. 生人이 陽임에 대하여 陰한 死者의 安住地임으로 이렇게 부른다.

陽墓：死者의 安宅이 陰宅 임에 대하여 陽인 生人의 住宅地 또는 都城邑村의 基地를 말한다.

龍：땅(地)의 起伏을 龍이라 한다. 이것은 그 狀態가 마치 龍과 같다고 해서 徐善繼(中國의 術師)는 그의 著書「人子須知 言雜說」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地理可以山名龍何也.

山之變態千形萬狀

或大或小或起或伏. 或逆或順或隱或顯

支壠之體段不常

咫尺文移移頻異.

驗之千物惟龍為然故以名之

取其潛見躍飛變化莫測云爾」

(地理家가 山을 龍이라 이름한 까닭은 무엇인가)

山의 變化가 千形萬狀이다.

혹은 크기도, 작기도 혹 일어나기도 엽드리기도 하고 혹은 逆도하고 順도하며 혹은 숨기도 하며 때로는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 形態가 일정하지 않다.

지척에 굴러다닐이 모두 같지 않고

다른 물건에 비추워 볼때 용과 같다.

그럼으로 이름하였다.

그 보이지 않고 뛰고 날며 변화를 측량하기 어렵다)

또한 龍은 陰陽造化의 物임으로 山의 變化가 無窮하고 그 造化를 測量기 어려운 점이 마치 龍과 같다하여 山의 起伏을 이름하여 龍이라 하였다.

脉節：龍에는 生氣가 流行하는데 이것은 마치 人身의 脉絡에 氣血이 運行하는 것과 같이 地中에 生氣가 흐름을 「脉」이라하고 龍이 一起一伏 또는 左折右曲하는 마디를 竹에 節이 있는 모양과 흡사하다하여 「節」이라 한다.

穴：龍脉中에 生氣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이것은 鍼灸學에서 人體의 要處 즉 鍼灸를 놓는 곳을 穴이라함과 同一한 觀念이다.

砂：穴의 周圀의 形勢를 砂라 한다. 一定地의 山水의 形勢를 부를때 보통 이것을 砂라고 稱한다.

局：穴과 砂를 합하여 「局」이라 하는데 陽基에서 나 陰宅에도 同一하다.

來龍：一局 혹은 一穴에 도달할때 까지의 龍脉에 이름 붙인 것으로 그 脉이 바로 穴에 들어가기 前을 지적하여 말하기도 하는데 모두 穴後의 山勢를 말한다.

祖山宗山：한穴의 來龍을 거슬러 올라가 가까이 있는 높은 산을 宗山이라하고 멀리있는 가장 높은 산을 祖山이라고 한다.

主山 後山(鎮山)：來龍脉節中 穴後에 높이 솟아 있는 산을 말하는데 대개의 部落 또는 墓地에는 이 山이 있어서 部落의 경우에는 이山이 그 部落을 鎮護한다는 意味로부터 鎮山이라고도 부른다.

入首：來龍이 穴로 들어가는 길목을 入首라 부른다. 즉 穴에 바로 인접하여 들어오는 氣가 통과하는 곳을 말한다.

頭腦：入首와 穴과의 接合點으로 약간 높고 불룩하게 일어난곳을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龍頭의 이마에 相當한다고 해서 이것을 頭腦라고 부른다.

城, 砂城：頭腦로부터 小脉을 일으켜 穴의 주의를 둘러 쌓고 있는 것을 砂城이라 한다. 이 砂城은 여하히 훌륭하게 諸砂를 具備하였어도 自然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人爲的으로 造營한다.

普通의 墓地에서 砂城은 墳墓의 後方 左右側面을 둘러 쌓고 前面만을 남겨 놓고 있다.

青龍 白虎：穴이 南面하여 있을 경우 穴後의 來脉으로부터 나와서 穴의 東方을 둘러 쌓고 穴前을 지나서 西方

註3) 張龍得氏說

註4) 朝鮮의 風水 및 明堂全書 p.13

에서 끝나는 산맥을 「靑龍」이라 稱하고 穴後의 來脉으로부터 나와서 西方을 둘러 싸고 東方에 달려나가 끝나는 山脉을 白虎라고 한다. 이 靑龍 白虎는 守護神인 四神 (靑龍, 白虎, 朱雀, 玄武)中 東方과 西方을 각각 護衛하는 것인데 風水에서도 그 守護의 意味로부터 東方의 脉을 白虎라 이름 붙인 것이다.

이 東을 靑龍 西方을 白虎로 한 것은 穴이 南向하여 있을 때이고 穴이 南面하지 않을 때에는 그 位置가 東西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穴의 左側에 있는 것을 靑龍 또는 右側에 있는 것을 白虎라고 부르고 있다.

이 龍과 虎는 穴内の 生氣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穴을 보호하는 뜻에서 여러겹으로 龍과 虎가 둘러 쌓여져 있으면 그 穴에 生氣의 모음이 커져서 理想的인 局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겹으로 있는 경우 內側에 있는 것이 內靑龍, 內白虎 또 그 外部에 있는 것을 外靑龍, 外白虎라 稱한다.

明堂 : 이것은 穴前(墓에 있어서는 墳前, 陽基에 있어서는 主建築物의 前方)의 땅으로서 靑龍과 白虎에 抱圍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이 明堂에도 內外의 區別이 있어도 穴의 直前 平坦한 땅(墓에서 墓板이라 稱하고 陽基에서는 主建築物의 前庭)을 內明堂이라 稱하고 이로부터 內明堂에 比하여 약간 廣大한 平地를 外明堂이라 한다. 이 明堂이라고 하는 名稱은 天子가 群臣의 拜賀를 받는 곳을 明堂이라고 하는데서 나온 것으로 이곳의 穴에 대하여 參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이다.

得, 破(水口) : 穴 혹은 內明堂의 兩側으로부터 또는 龍虎內로부터 發源하여 흐르는 水流의 發源處를 「得」이라 부르고 이 水流가 龍虎의 拱抱하는 사이를 흘러 나가는 곳을 「破」또는 「水口」라고 한다.

龍虎에 內外가 있음과 같이 內得, 外得, 內水口, 外水口의 區別이 있다. 一般的으로는 穴前에 흐르는 물에 대하여 穴前에서 보이는 곳으로 「得」, 그 흘러서 숨어 내려가는 곳을 「破」또는 「水口」라 稱한다.

之, 玄 : 來龍이 장차 入首에 옮기어 들어갈 때 그 脉形이 「之」 혹은 「玄」글자와 같이 屈曲하여 진행되는 것을 말한 것인데 그 脉의 屈曲하는 상태가 마치 「之」'玄」字와 흡사한 까닭으로 이와같이 붙인 것이다.

眉砂 : 入首에 있어서 頭腦으로부터 穴에 이르는 약간 높은 언덕의 형태 또는 꽃잎의 모양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형태에 의하여 蛾眉砂, 月眉砂, 八字眉砂의 名稱이 있다. 즉 蛾眉砂는 穴後에 小丘가 꽃잎으로 된 나비의 눈섭과 같은 것을 말하고 曲線의 左右로 나뉘어져서 흡사 초생달의 連續한 것과 같은 것을 月眉砂라 하고 그 左右에 나뉘어진 形態가 八字形과 같은 것을 八字眉砂라고 한다. 이것은 墳墓에 물이 흘러 들어 감을 막고 한편 墓穴의 生氣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다.

案山 : 穴前砂의 하나로 穴前의 낮고 작은 산을 案山이라 한다. 穴의 책상과 같은 意味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穴의 衛護를 말함으로 朱雀에 相當한다.

朝對山 : 穴前의 砂의 하나로 穴前에 있는 高大한 山으로 마치 賓客이 主人을 우러러 봄과 같고, 臣이 君을 받들고 子가 父를 따르고 妻가 夫를 좇는 形態로 穴에 대하여 朝拱을 하는 것과 같은 산을 말한다.

坐向 : 穴 또는 陽基가 앉아 있는 位置로부터 앞으로 향하여 내다 보이는 곳의 방위를 말하는데 穴이 앉아 있는 곳을 坐라 하고 坐로부터 전면의 방향을 向이라 하여 坐와 向은 恒常 佩鉄의 中心點으로부터 直線을 이루게 된다. 가령 正南向하고 있는 穴의 坐向은 子坐午向이 된다. (以下 佩鉄參照)

### 風水의 構成

風水에 있어서 吉地를 觀察하는 基本的인 觀點이 되는 것은 첫째 山, 둘째 水, 셋째 方位의 세 가지이다. 즉 風水의 構成<sup>9)</sup>은 위의 三者(山, 水, 方位)의 吉凶 및 三者의 組合에 의하여 成立된다. 그러나 이 山, 水, 方位의 三者는 風水에 限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風水說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時代나 또는 風水說을 모르는 地域에서도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는 山, 水, 方位를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風水에서는 山, 水, 方位의 三者가 사람에게 필요한 食糧燃料등 生活의 必須品을 주는 物質的 理由때문에서 보다는 오히려 精神的의 人生의 幸福 增進을 地理에 의하여 얻고자 하여 더욱 그 山, 水, 方位의 重要性을 높이 하고 있다.



名山圖

### 生氣感應

風水의 本質은 실로 生氣感應에 의하여 在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生氣感應이란 死者의 骨體가 땅에 묻혀서 그

땅속에 흐르는 生氣를 받은 것이 바로 그의 살아있는 그의 子孫에게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生氣感應에 대하여 李朝의 經國大典이나 禮典陰陽科의 과거시험의 필수과목인 地理學中的 靑鳥經과 金嶺經에 「百年幻化 離形 掃真 精神入門 骨骸返根 吉氣感應 累福及人 東山吐焰 西山起雲 空吉而溫 富貴延線 基或反是 子孫孤貧」이라 하여 사람이 죽으면 精神과 骨體 본래대로 분리되어 돌아가는데 精神은 宇宙의 精靈界로 돌아가고 骨體는 땅에 反還된다. 그런데 그 骨體가 땅의 吉氣를 받으면 子孫은 幸福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吉氣를 받지 못하면 그의 子孫은 衰微하여 진다고 한다.

또한 <sup>5)</sup> 葬者乘生氣地, 五氣行乎地中 人受體於父母 本體得氣遺體受蔭」라고 하여 葬者와 그의 遺者와의 관계에서 葬者가 生氣를 받는 것이 바로 그의 後孫에 影響을 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父母의 각 精은 그 身體 안에서 骨體를 이루었고 또 父母의 精은 그의 자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父母의 骨體와 子息은 모두 父母의 精이 化한 것으로 同格이라 할 수 있고 떨어져 있는 한 줄기라 할 수 있어서 地中の 父母의 骨體가 氣를 받는 것은 한줄기인 그의 地上的 後孫에게 바로 影響을 주는 바로 이 生氣感應 때문이다.

生氣란 陰陽五行說에 의하여 森羅万象은 모두 氣에 의하여 生盛衰亡된다고 하였고 地中에도 氣가 있다 하였다. 또한 그 氣가 여러 種類가 있어서 그 氣의 種類 및 強弱에 의하여 葬者가 받는 氣도 여러가지라 한다. 金嶺經에 이 氣란 「夫陰陽之氣 噫而為風 升而為雨, 行乎地中 則為生氣」(대저 음양의 氣란 불면 바람과 같고 오름은 구름과 같고 내려짐은 비와 같은 것이 地中에서 運行되고 있는 것을 生氣라 한다)라고 하여 氣를 설명하고 있다.

即 葬은 生氣를 타게 하는 것인데 五行의 氣가 地中에 있어서 父母의 本骸가 五行의 氣에 沐浴하면 父母와 子孫은 同氣가 相求하여 本骸가 受氣하면 子孫은 發福하게 된다.

그런데 地中에 行하는 五氣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것은 陰陽의 元氣를 말하는 것이고 이 元氣의 發揚如何에 의하여 風이 되기도하고 雲이나 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地中에 流行하는 곳에 生氣가 있게 된다. 그런데 陰陽의 元氣가 發現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五行이 된다고 함으로서 이것을 五氣라 한다. 따라서 그 質을 말할 때는 五氣라 하고 그 作用을 말할 때는 生氣라고 말하여 結局 五氣나 生氣라는 말은 同一한 것이 된다 하였다.

그런데 五氣니 生氣니 하는 氣란 무엇인가? 이 氣가 地中에 流行한다는 것이 風水說의 重要한 核必의 하나인데 이것은 宇宙의 万象이 陰陽의 兩氣가 五氣(木火土金水)가 되어 活動하여 生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것을 生氣라 하는데 萬物의 生死衰盛이 모두 이 氣에 의함이라 하여 사람에게 있어서도 역시 二五(陰陽五行)의 生氣에 의하여 生하고 또 이것에 의하여 生을 이끌어 維持하고 또한 이 生氣를 受함의 多少에 의하여 각기의 運命을 달리하게

하는데 다른 萬物도 이와 다르지 않다. 例컨대 夭折하는 者는 그가 生氣를 받음이 작기 때문이며 長壽하는 者는 生氣를 받음이 큰 者라 하였고 人生에 있어서 貴賤, 強弱, 貧富 및 盛衰도 모두 生氣의 多少 如何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와같이 宇宙의 造化力을 갖은 生氣는 人生이나 萬物을 運命을 지배하는 것으로 風水說의 本質도 또한 이 生氣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風水說의 本質은 親子의 同氣感應과 天地의 生氣說로서 이 本質로부터 사람의 幸福을 增進시키기 위한 것이 風水를 하는 뜻이라 한다.

### 2-3 風水의 法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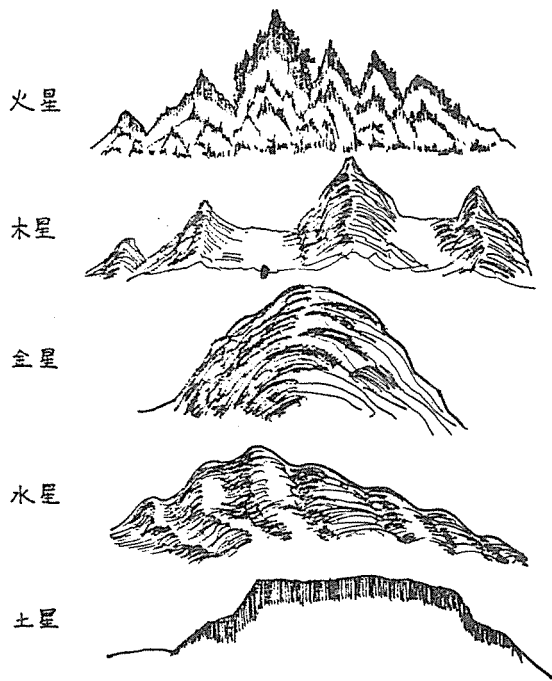
風水의 本質이 親子感應과 天地의 生氣인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地上的 後孫이 幸福을 얻기 위해서는 親祖上을 生氣있는 곳에 葬하여야 한다.

法律的으로는 養者가 親子와 同一하게 그 父母의 影響을 받을 수 있으나 風水地理에 있어서는 親子가 아닌 자는 전혀 그 影響力이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父母와 親子는 그 精에 있어서 同一하기 때문에 親子만이 父母의 生氣의 感應을 받게 된다. 따라서 後子孫은 오직 그의 親祖上의 葬함이 바로 자기에게 그 影響을 받게 되어 葬地를 찾음에 生氣있는 곳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地中에 流行하는 氣는 眼(目)에 그 氣가 있는지의 如否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 生氣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점이 風水說을 어렵게 만드는 根本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地中の 氣가 직접 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眼에 보이는 “다른 要件”을 觀察하여 그 곳의 氣의 存在 如何를 把握한다. 이때의 氣아닌 “다른 要件”이란 바로 風水의 構成인 山, 水 및 方位의 三者를 말한다. 즉 地中에 生氣가 있고 없음은 바로 그곳의 山, 水 및 方位의 如何로부터 把握하게 된다. 따라서 風水의 法術이란 바로 이 山, 水 및 方位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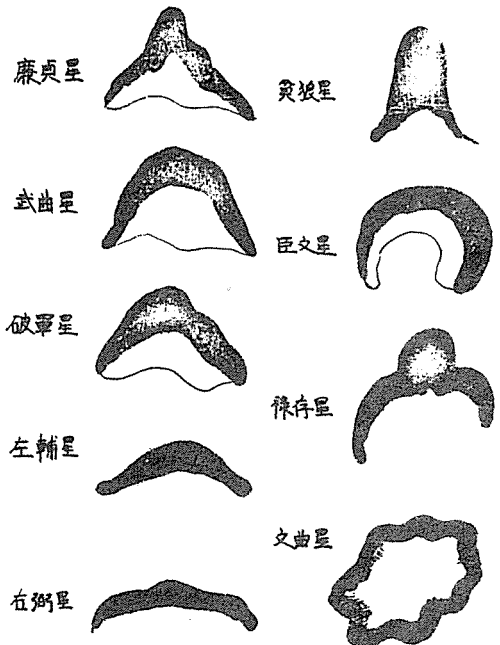
#### 龍

風水에는 山을 龍이라 부르는데(용어해설 參照) 이 龍이 初發한 山을 太祖山이라 하고 이 太祖山으로부터 등뼈와 같이 뻗어 내려간 山脈을 幹龍이라 하고 또 이 幹龍으로부터 分脈하여 三四 혹은 五六節의 뻗어 내린 것을 枝龍이라 부르는데 平地에서는 약간의 高地가 있게 됨으로 平地에서는 한치라도 높은 것이 낮은 곳에 비하면 龍이 되고 낮은 곳은 水로 인정하여 普通의 山으로 認識한 龍과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다.

風水에서 山을 크게 그 形態에 따라 五種類로 分類하고 이것의 변형이 아홉가지로 보아 五星과 九星으로 分類하고 있는데 이때에 星字를 붙인 것은 地上的 物體는 天上의 物體가 그 形을 갖게 된다고 하여 天上에 있는 그 根源을 따라 星이라고 붙인다고 한다. 그리고 五星과 九星이 또 각각의 變化가 있어 그 종류를 더욱 세분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形은 正體라고 덧붙여 이들의 변



五星正体山形图



九星의 正体图

형과 区别하고 있다. 五星 正体 에는 木星 火星 土星 金星 水星이 있고 九星正体는 주로 北斗七星의 각각의 이름을 따서 貧猪星 巨文星 祿存星 文曲星 廉貞星 武曲星 破軍星 左輔星 中弼星이라 부른다.

山을 五星으로 分類하여 木火土金水로 分類한 것은 그 形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水는 潤下 火는 炎上 木은 曲直 金은 從革 土는 稼穡하는 性質로 하여 区分된 것인데 자기의 山이 또한 清秀하고 眞하면 그 山의 氣 또한 清秀하며 吉하고 이와반대로 山形이 醜惡하면 이에 미치는 影響은 凶을 초래케 하게 되고 또한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주변의 山과 相生을 하지 않으면 그 影響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相克하는 山과 같이 있으면 害를 받게 되기도 한다. 이中에서도 火星의 山은 相生관계에 있어도 火星이 玄武의 山일때는 氣를 地中에 모아두지 못하고 炎上함으로 地氣는 枯燥되어 穴을 맺지 못한다. 따라서 火星은 左右에 있어도 좋지않고 멀리 보일 정도로 있는 것이 좋다.

#### 生龍과 死龍

山의 形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도 生氣가 없는 곳이 있다. 生氣가 있는 山을 生龍이라 하고 生氣가 없는 山을 死龍이라 한다. 이것은 한 나무의 가지중에서도 꽃이 피지 않고 과일도 열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生龍과 死龍을 判別하여야 된다. 일반적으로 龍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左로 右로 뺨고위로 솟고 아래로 꺼져 내리고 하여 마치 살아서 活動하여 “之”字나 “玄”字와 같이 꺾여서 뺨어나가는 것은 生龍이고 靜

하여 움직임이 없고 直線으로 흘러 내린 것은 氣가 없는 死龍이다.

따라서 葬함에는 우선 生氣있는 곳을 찾게 되나 生龍이라고 모두 좋은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도 있으므로 이것을 区别하여 吉龍과 凶龍으로 나눈다.

生氣있는 龍中에서도 凶龍의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石山: 흙이 없는 石山은 生氣가 흘러나가 모이지 않음으로 凶龍이다.
2. 斷山: 山으로서 脉이 斷絶된 山은 生氣의 흐름이 끊어져 없어 凶龍이다.
3. 過山: 生氣는 山脉이 끊친 곳에 머물러 모이기 때문에 生氣가 흘러 지나쳐 버리는 山의 中間支點 같은 곳은 生氣가 없다.
4. 獨山: 生龍이 주변의 山과 어울려 있지 못하고 홀로 멀리 떨어져 있는 龍은 凶龍이다.
5. 童山: 草木은 陰陽이 中和하는 곳에서 繁盛한다. 따라서 草나 나무가 울창한 곳에 生氣가 모이게 마련인데 草木이 없는 곳은 童山이라 하여 凶龍이다.

이들 외에도 驚龍, 病龍, 亂龍등은 忌避하여야 한다.

生龍中에서 吉龍은 우선 來勢가 길고 起伏이 많은 것으로 福, 庇, 生, 揖의 代表的인 吉龍이 있는데 生龍은 祖宗으로부터 오는 脉이 活潑하고 흡사 뱀이 물을 건너가는 상과 같고 穴따귀리가 하늘을 날으는 것과 같고 이

에 따를 左右足入首가 端正하고 橫案이 分明한 것을 말한다.

福龍은 主方의 後山이 있고 側面을 날개와 같이 보호해 주는 것을 한 것이고, 庇龍은 橫案이 없어도 左右包抱하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하고 揖龍은 包抱가 重重하고 體勢가 서로 어울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生氣가 흐르는 땅이라도 그 生氣가 모이는 한 점이 있어서 葬者는 이 점을 찾아서 묻어야 生氣에 목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風水에서 生氣가 모이는 점을 穴이라 하고 또 龍의 勢가 끝인 곳을 局이라 하고 氣가 모이는 곳을 結穴했다 하고 龍이 끊친 곳을 成局이라 하게 되어 成局이 있는 곳에는 結穴이 있게 되고 結穴이 있으면 成局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 穴은 龍의 中間에 있지 않고 항상 끝나는 곳에 있게 된다. 이것은 草木에서 꽃을 피우고 結實하는 곳은 나무의 줄기가 아니고 가지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이 生氣가 모이고 또한 그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곳은 穴에 있어서 陰陽의 二元氣가 서로 給合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電氣에서 陰과 陽電氣가 化合해야 그 힘이 發現됨과 같은 것으로 風水에서는 龍이 來하면 이것을 맞이해 주는 것이 있는 곳이라야만 그 生氣가 活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陽來陰受 또는 陰來陽受라고 한다.

藏風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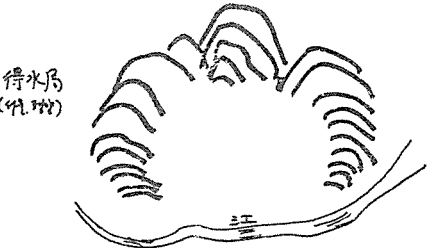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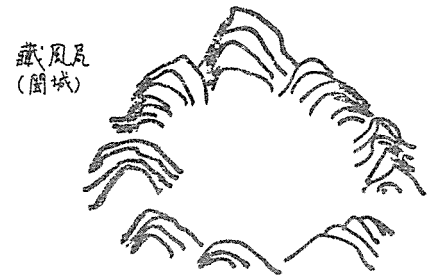
風水는 生氣를 타는 것이 우선 취할 것인데 이 氣는 바람을 맞으면 흩어져 버린다. 그런데 바람 그 자체는 生氣와 같이 陰陽의 二氣의 所生인 까닭으로 이 바람의 氣도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가는 것만을 막는다면 이것 또한 氣를 뭉치는 일이기 때문에 風水에서 바람이 들어오음을 꺼리지 않고 오히려 빠져 나감을 꺼린다.

이와같이 바람을 붙잡는 것을 藏風이라 한다. 따라서 藏風을 하는 곳에 生氣가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곳이 된다. 이와같이 藏風을 하는 風으로는 穴을 이룬 成局의 주위에 이 穴을 감싸주는 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이 감싸주는 山을 砂라고 부르는데 穴을 이루는 來龍과 이 穴을 감싸주는 砂가 또한 서로 어울려서 陰來陽水가 이 무워져야 한다. 穴을 둘러 쌓고 있는 靑龍이나 白虎도 砂의 일부가 된다.

得水法

「風水之法 得水為上 藏風次之……」

「氣者水之母 有氣斯有水……」라 하여 風水에서는 물을 제일로 重要視한다. 또한 陰陽二氣融結하여 山도 되고 水도 되는 까닭에 山과 水가 均衡하면 陰陽의 和를 이룰 수 있고 陰陽이 서로 모이면 生氣를 낳게 하는 고로 山水의 서로 모이는 곳을 吉地로 한다. 山은 吉位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좋게 보고 물은 凶方으로 빠져나감을 可로 한다. 또 穴이 山을 접해 있으면 貴格이며 물을 접해 있으면 너그럽고 만약 穴의 向이 山에 등지고 있으면 祿을 받지 못하며 물을 등지고 있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또한 山은



名掌圖

本來 그 성질이 靜止하여 水는 動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山은 陰에 속하고 水는 陽에 속한다. 그런데 陰은 體를 주로하고 陽은 用을 주로 하기 때문에 吉凶禍福은 水에 의하 迅速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山水兩者를 人體에 比하면 形体와 같고 水는 血脉과 같다.

사람에 있어서 生長榮枯는 오로지 血脉에 依存하기 때문에 山水에서도 역시 물이 山과 合하지 않고서는 吉한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地理의 法은 山水의 二者로부터 吉한 것을 얻어 子孫의 富貴를 누리려고 저 穴에 있다. 여기에 水의 重要性을 다시 말하면

첫째, 萬物은 陰陽 二元氣에 의하여 生長함으로 風水에 있어서 山과 水가 陽陰이 되어 二者가 合하여야 生氣를 모이게 하며

둘째, 山과 水가 같이 있다 하여도 生氣가 반듯이 發生한다고는 할 수 없고 造化를 이루는 生氣는 陰陽 兩者의 沖和 融合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까닭에 山과 水가 陰陽兩者로 나뉘지지 않는다면 生氣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風水에서는 물(水)은 動한 것은 피하고 靜한 것을 吉로 한다.

세째, 물은 本性이 流動하나 그의 本性대로 流動하여서는 如何히 有力한 山과 모여도 生氣를 이루지 못하며 오히려 生氣를 깎아 씻어가 버린다. 따라서 연못처럼 잠잠하여야 하며 만일 奔流하는 水는 凶水로 여기며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水로써 朱雀을 이루고져 할 때는 躍動함과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되며 연못처럼 고여 있어야 한다. 山으로 朱雀이 되었을 때도 山이 춤추는 듯 하면 이것은 날아가 버리는 뜻이므로 좋지 않다.

네째, 兩水가 合하는 곳에서 脉은 끊어진다. 다섯째 風水에서 水는 財物을 주로 한다. 여섯째 山이 體이고 水는 用임으로 水는 그 影響이 急

占穴法

風水에 있어서 穴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그 目的을 달성하는 마지막 문제이다. 藏風이나 得水로 穴의 대강의 범위는 把握할 수 있으나 穴의 정확한 위치는 찾는 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마치 人体에 있어서 經穴의 위치가 針灸에 있어서 조금만 틀려도 生命에 큰 차이를 주는 것과 같아 「以千里來龍入首. 惟融八尺文穴」이리 한 것과 「毫釐之差禍千里」라고 금낭경에 쓰여 있듯이 털 끝만큼의 차이로 인하여 천리를 뻗어온 來龍의 禍福의 결과가 千里로 다르다 한 것으로 보아 風水에서 정확한 穴의 위치를 찾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겠다. 이것은 마치 오목렌즈나 볼록렌즈에서 또한 각 렌즈의 종류 및 크기에 의하여 그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 각 穴은 그 局에 따라 穴의 위치를 달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穴의 形態

風水에 있어서 穴의 대표적인 形態로 네가지 기본형으로 분류를 한다. 즉 窩(구멍와) 鉗(모자를검) 乳, 突의 四形이 있는데 이와 窩은 凹形에 속하며 乳와 突은 形에 속한다. 穴의 形態를 네가지로 分類하게 된 것은 마치 太極이 兩儀로 또 四象으로 變化된 것과 같다.

窩穴은 제비의 집과 같고 닭의 둥우리 같고 남비의 밑바닥 같고 쟁반과 같은 모양으로 위로 향하여 凹形으로 열려 있는 형이다.

鉗穴은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형이며 虎口와 같고 舍谷과 같이 두개의 가운데에 끼인 것과 같은 형이다.

乳穴은 양팔을 벌린 가운데의 늘어진 것무덤과 같은 형이고 젖꼭지와 같이 볼록한 것을 말한다.

突穴은 魚泡와 같이 둥글고 볼록한 것을 말한다.

窩形穴 : 이는 平地와 高山에 다 있는 것으로 높은 산에 더욱 많은바 高山은 凹한 곳으로 眞穴을 삼고 平地는 突(솟을 돌)한 것으로 眞穴을 삼는다. 또 窩의 形에는 四格이 있어 深窩, 淺窩, 陝窩, 潤窩등 4가지가 있어 모두 左右가 均一한 것이 正格이요 左右가 고르지 못한 것은 變格이다. 또한 穴의 體에 따라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藏口窩體요 또 하나는 張口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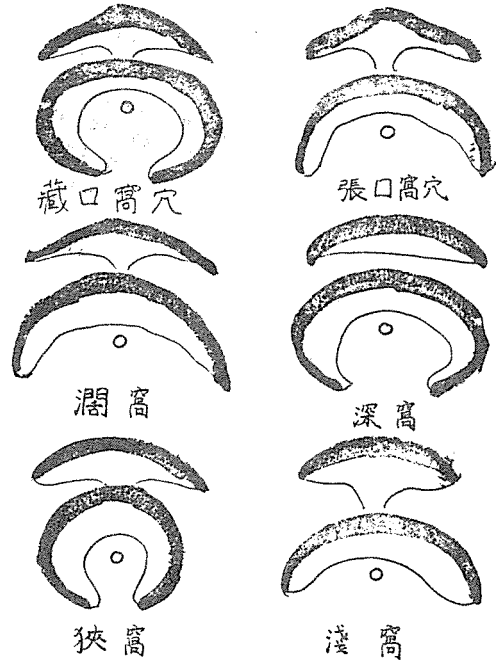
鉗形穴 : 高山이나 平地에 모두 있는데 두다리를 벌린 상태로 穴星이 이루어진 것으로 鉗形穴에는 五格이 있는데 즉 直鉗, 曲鉗, 長鉗, 短鉗, 雙鉗, 의 五者를 말한다.

直鉗 : 左右 兩脚이 모두 곧은 것으로 다리가 길고 단단하면 不可하고 반듯이 아름답고 短少한 것이 吉하며 앞에 가까운 右편 案山이 橫으로 둘러 있으면 더욱 아름답다.

曲鉗 : 左右 두다리가 구부러져 內堂을 안은 것으로 두다리가 소뿔 모양으로 되어 활같이 穴場을 안아야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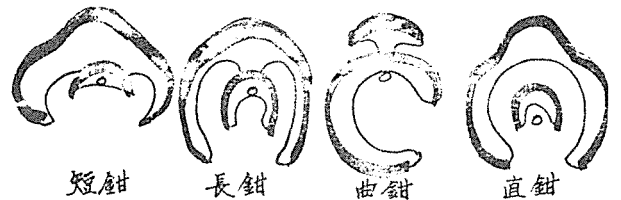
長鉗 : 左右 두다리가 모두 긴 것인데 곧고 단단하고 너무 긴 것은 不可하다.

短鉗 : 左右 두다리가 모두 짧은 것으로 너무 짧으면 不可하다.



窩形穴圖

鉗形穴圖



雙鉗 : 두다리의 左右가 다 雙枝로 갈라진 것으로 다리 끝은 뾰족하여 서로 찌르지 않는 것이 좋다.

乳形穴 : 양팔을 벌린 가운데 乳穴이 있는 象으로 懸乳穴(달아맨 젖) 혹은 垂乳 乳頭라고도 하는데 平地나 高山에 다 있다. 乳穴중에는 六格이 있으니 長乳, 短乳, 大乳, 小乳, 雙垂乳, 三垂乳이다. 이중에 長短大小의 四格은 正格이고 雙垂乳 三垂乳는 變格이다.

대개 乳穴은 가장 이그러지고 들어나고 四方으로 꺾어진 것을 忌하고 반듯이 두팔이 에워싸야만 眞結이다. 六格의 形이 모두 구부리고(俯) 우러르는(昂) 二가지 體가 있으니 구부린 穴은 아래로 내려 살을 벗고 昂穴은 위로 약간 올려 脈을 接하는 것으로 만일 後龍이 吉하고 入首가 明白하고 星辰이 合格하면 가장 귀하다.

長乳 : 長乳은 乳形이 긴 것을 말하는데 너무 길면 脈이 살지 않는다. 대개 長乳의 上中下 세곳에 入穴하였는데



완연히 평탄한 곳에서 前後 左右와 凶勢의 有情無情함을 살펴 穴을 定하게 된다. 두 다리가 안으로 正中하게 싸이고 一乳가 준급하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고 단정해야만 合格이고 길고 단단하고 거칠고 準급하고 가슴이 솟고 부스럼 같고 던진 竹筒같은 乳는 眞結이 아니므로 取穴이 함 불가하다.

短乳 : 短乳란 짧은 것으로 즉 두다리 中間에 垂乳가 짧은 것으로 너무 짧으면 힘이 적고 氣弱하다.

大乳 小乳 : 乳가 극히 크거나 혹은 매우 작은것을 말한다. 乳가 너무 크면 반듯이 거칠고 완만하면 부스럼 같아 불길하고 乳가 너무 작으면 力量과 氣가 弱하여 不吉하며 左右 兩掬이 웅장하면 抑壓당하듯 하여 더욱 나쁘다.

雙垂乳 三垂乳 : 乳가 두개 혹은 세개로 가지런히 있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乳에 길고 짧은 것이 있거나 기울어지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을 취할 수가 없다.

#### 突形穴

山谷의 穴은 바람을 감추는 것을 要하는 고로 山谷의 突은 左右가 環抱함이 좋고 외롭게 들어나서 바람받는 것을 꺼린다. 突形穴에는 四格이 있다. 즉 大突 小突 雙突 三突의 네가지로 大突과 小突은 正格이며 雙突과 三突은 變格이다.

大突形 : 이는 높고 큰것으로 平地나 高山을 막론하고 너무 크면 거칠고 완만한데 가까우므로 좋지 않고 반듯이 적당히 커서 突의 面이 빛나고 둥글고 形體가 분명해야 吉하다.

小突形 : 突이 작은 것으로 약간 솟아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적당히 작고 突의 面이 빛나고 살찌고 부드러운 것은 吉하고, 지나치게 작아 高低가 不明하고 界水가 広濶하거나 혹은 물이 베이고 四盤이 미약하여 의지가 없으면 眞이 아니다.

穴星 : 穴場에 入首한 來龍의 眞偽善惡이 그 穴의 吉凶을 左右하게 하는 까닭에 그 入首한 來龍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穴星이라 한다.

이 穴星에는 五星이 있고 각 五星에는 또 正體, 側腦, 平面의 三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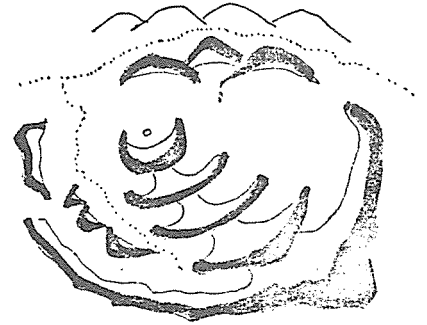
## 2 - 4 風水의 形態

### 1. 形態에 따른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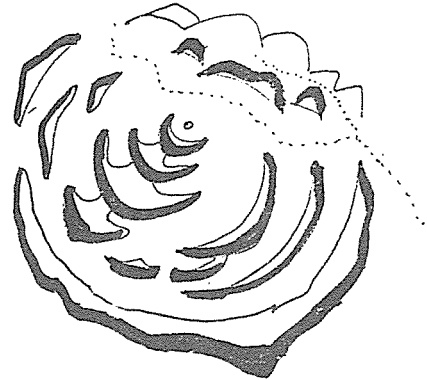
萬物은 각각의 獨特한 氣를 갖고 있다. 이 氣는 주위의 다른 氣에 影響을 미치는 힘을 갖고 있고 이러한 各物體의 氣는 그 形態로 把握된다. 風水에서는 이 形態를 중요시 여긴다.

陰陽五行說에서 萬物은 一元氣에서 발생하여 이것이 變化하여 生長 또는 消滅하는데 이 氣가 化하여 物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氣의 物化된 象을 形이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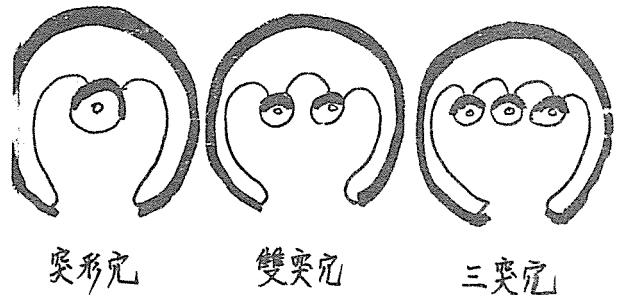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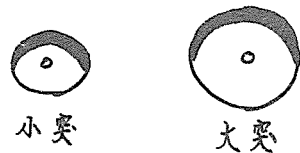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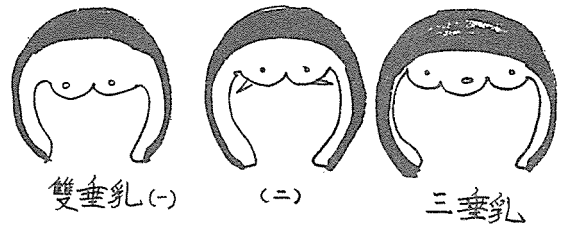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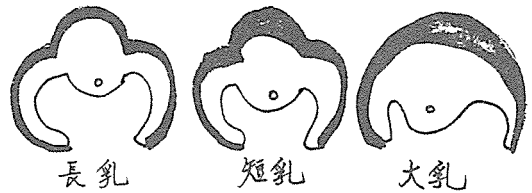
深窩



淺窩



窩形穴圖



고로 한 物體가 어떤 氣를 갖고 있는가는 바로 그 物體의 形으로 알 수가 있다. 즉 木氣가 흐르는 山의 형은 꼭 바로 선 나무의 줄기와 같은 形을 이루고 있고 둥그런 종과 같은 山은 金氣를 흐르고 있다.

또한 뾰족한 불꽃형태를 갖은 火山은 火氣를 발산하고 있다. 이렇듯 한 물체가 갖는 형태는 그와 같은 氣를 갖는다는 觀念은 原始時代의 類物信仰과도 일치하고 있다. 즉 男根의 형태의 돌은 男根과 同一한 신비력을 發揮하고 女陰과 같은 岩間은 出産의 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서로 다른 두개의 物體 즉 氣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상대편의 氣의 影響을 받게 된다. 이러한 氣의 影響을 感應이라 하고 이 感應은 두 氣의 種類에 따라 相生하거나 相克하게 된다. 新春에 太陽의 氣에 의하여 山野의 草木이 만발하게 되는 것도 바로 氣의 感應때문이다. 風水에서도 산수의 氣가 바로 사람에게 感應되어 人生의 운명을 左右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風水에서는 山水의 氣를 把握하기 위하여 그 山水의 形態를 세밀히 조사하고 그 山水의 氣가 그곳의 사람에게 어떠한 感應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를 예정하기 때문에 山水의 형태를 매우 중요시 하게 된다.

## 2.吉凶의 形態

風水에서는 땅의 形態로부터 그곳의 氣를 把握하여 그 氣가 그곳의 사람들에게 미칠 吉凶禍福을 예지하는 기술인 때문에 땅의 형태와 그에 따른 影響을 나타낸 대표적인 기록들을 볼 수가 있다.

「大富之地 圓峯金櫃, 貝寶番來 如川之至. 貧賤之地, 亂如散蟻」라 하고 있어 극히 常識的인 判斷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形과 勢의 관계에 대해서는 「夫勢與形順者吉, 形與勢逆者凶, 勢凶形吉, 百福希一, 勢吉形凶, 禍不旋日」라고 하여 勢와 形이 모두 順한 것을 吉, 形과 勢가 克한 것은 凶, 勢는 凶하나 形이 吉한 경우에는 百福中 一福만 맞게되고 勢吉하더라도 形이 凶하면 禍가 끊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勢란 來龍을 말한 것이고 形을 穴의 주위의 상태를 말한 것으로 形을 勢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산의 形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山肥人肥, 山瘦人飢, 山清人貴, 人破人悲, 山婦人聚 山走人離, 山長人男, 山縮人低, 山明人智, 山暗人迷, 山順人孝, 山脊人欺라고 했으며 사람의 淸濁, 美醜, 貧富, 貴賤, 夭壽 子孫의 多少등은 모두 그땅의 形에 의하여 左右된다고 하였다.

## 3 形態의 種類(복합형)

땅의 한 穴 혹은 局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의 여러 砂의 複合되어 이루어진 형태에 名稱을 붙여서 쓰고 있다.

이들의 名稱과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sup>15)</sup>

金鷄抱卵形 : 金鷄는 天鷄로 夜半에 아침이 돌아옴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새로 金鷄의 形은 上吉로 친다. 또한 天鷄는 한번 알을 품으면 20여개의 알을 낳는 고로 이것 또한 大吉이다. 따라서 이러한 形의 所應은 만인의 지도자가 되는 영웅이나거나 대대로 資本의 번창이 매우 좋게 된다.

臥牛形 : 소는 성질이 溫順하면서도 剛하다. 소는 옆으로 누워서도 되새김을 하고 먹고 있다. 따라서 소의 형에는 案山에 穀草形의 砂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더욱 좋하게 여긴다. 이러한 地形의 所應은 大人을 낳게 하고 子孫代代로 누워서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幸福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소는 새끼를 한마리씩 밖에는 낳지 못함으로 금계 포란형에 비하여 子孫이 적은 것이 힘이라 하겠다. 臥牛形에 墓를 정하는 곳은 角, 鼻, 尾, 乳, 肩間등이 있고 특히 物을 貫하는 危力이 있고 鼻은 雲心賦로 전하여지는 바와 같이 物을 識別하는 機官이며 尾는 몸을 귀찮게 하는 파리 모기등을 쫓아내는 기능이 있고 乳는 송아지를 키우며 肩間은 싸움을 하는 경우에 적을 맞아 들이는 곳이며 강을 건널때는 이곳만은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곳으로 이 角, 鼻, 尾, 乳의 위치를 좋게 여긴다.

玉女彈琴形 : 玉女는 遊芸에 뛰어나고 그 모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彈琴까지 하는 것은 반듯이 경사스런 조짐을 뜻한다. 이 地形의 所應은 뛰어난 人材나 登科者 富者 혹은 玉女를 낳게 한다.

玉女散髮形 : 이 形은 案山에 빗을 갖고 右에는 거울을 左에는 粉粉을 들른 것을 더욱 좋게 여긴다. 散髮은 盛粧하기 위한 準備로 단정한 모습을 予期케 하는 까닭에 이 形의 所應은 못사람들에게 善望의 對象이 되는 人材를 配出케 한다.

### 雙龍奔珠形

龍은 입에 구슬을 물으면 비로소 昇天하게 된다. 따라서 용이 구슬을 얻는 것은 가장 기쁜일이기 때문에 이 地形의 所應은 大官을 배출한다.

產狗形 : 개는 多産함으로 이 地形의 所應은 容易하게 子孫을 繁殖하게 하는 吉地로 친다.

梅花落地形 : 이 꽃은 高潔하고 이 落花는 그의 香氣를 四方에 널리 퍼지게 함으로 크게 子孫이 發福케 한다.

桃花落地形 : 이 꽃은 땅에 떨어지면 사람의 愛惜을 禁치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 形에 人葬하면 만인에 사랑을 받는 人材를 낳게 한다.

龜尾形 : 거북은 天理를 能히 아는 靈物로 陰陽의 調和를 自由롭게 하는 힘이 있다. 거북의 꼬리는 五行의 精氣가 모여서 發露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形은 吉地로 富貴와 繁榮을 招來케 한다.

渴鹿飲水形 : 어느것도 穴前에 蓮池있는 것을 要한다.

연못이 없을 경우에는 못을 파서 물로 채워 연못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老鼯下田形 : 이 형은 穴田에 粟糧이나 庫藏形의 砂가 要하다. 이 砂가 없으면 쥐가 숨을 장소를 갖지 못하여 불안케 된다.

쥐는 본성이 번식력이 강한 까닭에 이 地形은 子孫을 繁盛케 한다.

三女同坐形 : 三女는 母, 妻 딸의 三女를 말하는데 이

形은 穴前에 3개의 童子案이 있으면 一家和合하고 子孫이 繁盛하는 吉地이고 三童子의 砂가 없으면 그 形은 三陰都會의 地라 불리우는 곳으로 이 所庇은 無子婦, 寡婦를 만들게 하는 亡地이다.

飛蛾附壁形: 山의 靑壁上에 제비가 붙어 있는 것은 모양이 매우 아름답다. 穴前에 花枝形이 있고 左에 東風扇이 있으면 더욱 吉地로 된다.

巳頭形: 이 形은 前案에 개구리形의 砂가 있으면 더욱 길하게 여긴다. 이것은 장차 뱀이 개구리를 먹으려는 象으로 發福을 疑心하지 않는다.

頭形: 이 形은 앞에 桑形의 이나 桑林의 案이 있으면 吉하다. 누에는 뽕나무를 먹고 사는고로 뽕나무 밭이 있으면 오직 이것을 먹으려고만 全念한다. 따라서 이 形은 運氣를 旺盛케 하고 發福케 한다.

行舟形: 이 形은 주로 陽基에 많이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舵(타기) 槳(장 돛대) 碇(정 돛) 등을 具備하면 大吉이다. 이중 한개만 있어도 吉하게 여긴다. 이 行舟形의 땅에는 우물을 파는 것은 배의 바닥에 구멍을 뚫는것과 같이 불길하게 여긴다. 이 行舟形은 사람과 物件을 滿載하여 장차 출발하려는 배를 뜻하며 이 形의 땅에는 사람과 財貨를 豊富하게 모이게 하는 所心이 일어 發達하고 繁昌하게 한다.

#### 4 風水의 裨補

땅의 形勢가 어느 面에서든지 完璧하게 좋은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러한 땅은 人德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만 하늘이 宿命的으로 賦与한다고 한다. 따라서 一部の 不足한 地形을 人爲的으로 補充하여 그 소용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方法으로 탑을 세운다던가 절을 짓는다던가 其他의 方法으로 地勢를 裨補한다. 이러한 目的으로 세워진 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들면 아래와 같다.

1. 皇龍寺의 九層塔: 新羅 善德王때 國家의 安全과 三國統一을 위해 세워졌다.

2. 安東의 古刹古塔: 慶北安東에 七層塔이 있는데 이 塔은 安東의 邑이 南面하여 洛東江을 면하여 열려져 있어서 이로부터 邑을 鎮護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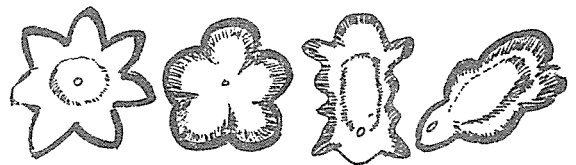
3. 忠州의 中央塔: 忠淸北道 忠州邑內에 九層石塔이 있다. 이 塔은 新羅元聖王 十二年에 세워진 塔으로 建設 유래는 다음과 같다. 즉 이 땅이 당시 地理적으로 全國土의 中央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中央의 땅을 鎮護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도 하고 당시 忠州의 땅에 王氣가 충전하여 그 王氣를 抑壓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한다.

이상의 두가지 유래가 같지는 않으나 모두 鎮壓說에 의하여 세워진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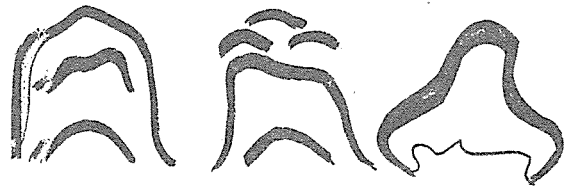
#### 2-5 方位

##### 1. 佩鉄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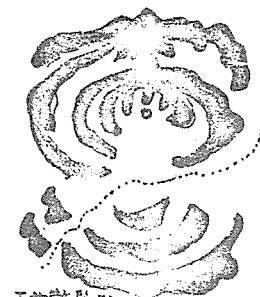
風水에서는 地氣가 모이는 穴에 先祖墓를 써서 그의 先親을 平安하게 모시고 따라서 後孫도 幸福을 받고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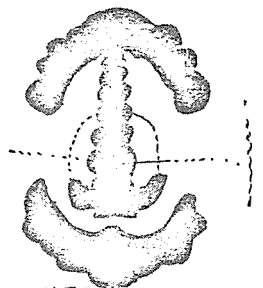
蓮花形 梅花形 靈龜形 游魚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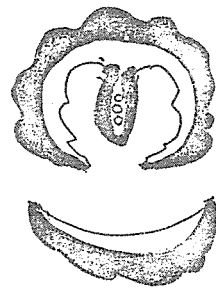
粧臺形 鏡臺形 獻花形



五文散雙形 (長浦西四里)



將軍大塚形 (公州見山南五里)



行舟行三槳案 (濟州碇下大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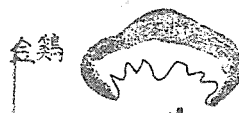
金鷄卵形 (鎮川菜屯山峙下)



牛



金



金鷄



三台



鳳飛



天橋



仙鶴



獅



龜



虎

다. 따라서 氣가 地中에 行하는 것을 把握하여야 한다.

方位를 알아보기 위해서 佩鉄을 사용한다. 佩鉄은 지남철과도 같아 南北(午子)를 가르키는 針이 있고 그 南(午)과 北(子) 사이를 等分하여 이들을 포함한 二十四方位로 区分해 놓았다. 그리고 각 二十四方位에 名称을 붙여 그 方位를 불러 사용하고 있다.

佩鉄이 使用된 歷史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sup>17)</sup>

中国이 史記要賢 帝王篇에 太古에 伏羲氏가 八卦를 劃定하고 八方을 定하였으며 그후 西紀前 約 三千年에 黄帝軒轅氏가 鬼方을 征伐할때 鬼兵이 안개와 구름으로 造化를 부려 四方을 分別치 못하고 混亂에 빠지자 이에 方向을 알기 위하여 指南車를 만들어서 方位를 分別하고 드디어는 鬼兵을 물리쳤다 하는 記錄이 있어서 이것이 指南鉄의 始初인 것으로 推測한다. 그러나 그의 構造는 오늘과 같지 않았고 단순한 것일 것이고 最近에 使用하는 모양의 佩鉄은 西紀 1683年 淸나라 康熙 22年 仁皇帝가 歷代 陰陽法을 綜合 修正할때 術士 梅穀成으로 하여금 指南鉄을 校正하라고 命한 記錄이 지남철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 것으로 보아 이때에 만들어진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 6 風水書와 風水師

### 1. 風水의 書籍<sup>18)</sup>

新羅 高麗時代에 사용되어 왔던 風水書籍의 名称은 確實히 알수가 없으나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風水에 관한 書籍은 약 280여종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書籍의 대부분이 肉筆로 写本 되어져서 전파되었고 여기에 風水師가 자기 나름대로의 主張을 挿入하거나 本來의 內容의 일부가 빠지기도 하여 똑같은 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李朝時代에는 風水書가 陰陽科의 과거시험의 한 과목이었고 이때에 주로 사용된 書籍의 名称은 靑鳥經, 金장經 胡舜申, 明山論, 地理門庭, 捉賦脉疑龍, 洞林照騰, 經国大典 등이다.

또한 이 중에서 가장 權位가 있는 것으로는 靑鳥經, 金裏經, 胡舜申, 明山論의 四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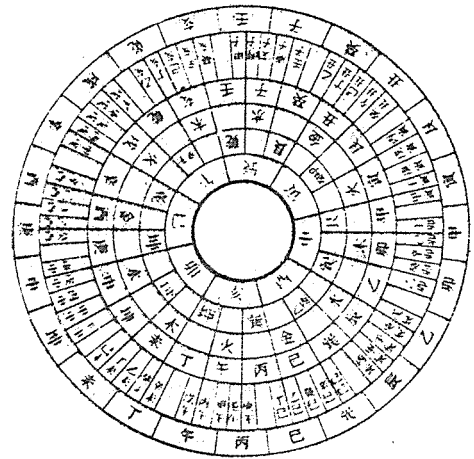
### 2. 風水師<sup>19)</sup>

風水地理理論에 立脚하여 땅의 吉凶을 觀察하는 者를 風水師, 地師, 地觀, 또는 地官이라 부르고 있다.

風水師나 地師는 모두 風水說에 能通한 者를 뜻하고 地官이란 말은 원래 王家에서 陵을 造營할 경우에 採択된 風水師를 地官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로 부터 由来되었다 한다.

이 地官은 恒常 官員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王陵 選定이 必要할 때에만 任命되어 臨時的 官員으로 任務를 隨行하게 되었다.

## 2. 佩鉄의 形態



王家로 부터 地官으로 任用된 者는 全國적으로 風水의 第1人者로 選出된 者로 가장 優秀한 風水師로 認定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地官이었던 者는(地官의 任用期間이 지난후에도) 그 名称을 繼續하여 불러 敬稱하였기 때문에 地官으로 불리우는 者가 많게 되었고 차차 風水說이 그다지 많지 않은자도 風水術에 從事하는 者는 敬稱하여 地官이라 부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初期에 風水師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漢文知識에 해박해야 되고 風水의 書籍을 여러권 學習한 후 선배 風水師에게 실지(實地)의 指導過程을 거친후에 드디어 全國의 山을 踏山하여 理論과 實際의 부합 여부를 공부한 후에야 風水師에 資格을 얻게 되었으므로 風水師가 되기 위하여서는 십여년의 오랜 研究가 必要하였다. 그중에서도 地官으로 任用될 수 있는 자는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 經国大典에 규정된 地理學科의 全部를 통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이 風水師는 漢文의 知識이 많은자만이 공부할 수 있는것으로 이는 經濟的으로 階級的으로 여유가 있는 양반 이상 신분이나 시도할 수있는 學問으로 風水師의 地位에 오른자는 社會로부터 많은 尊敬을 받았다. 따라서 다른 占術이나 盲人 坐女의 業과는 本質적으로 次元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風水師의 一定的 資格規準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關係로 風水의 理論이나 實際에 通達하지 않은자도 風水師로 自稱하여 일반인에게 混亂을 주고 있다.

風水師는 漢文의 實力이 많은 자만이 공부할 수 있어서 과거로 부터 승려에게 많은 風水師가 配出되었다.

歷史上 有名한 風水師로는 道洗(新羅末) 無學(李朝) 西山大師, 積休靜(李朝宣祖時代) 南師古(李朝明宗) 등이 있다.

(완중학건축대표)

註17) 張龍得著, 明堂論全集 p. 144

註18) 朝鮮의 風水 p. 295